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이철형
교장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2020년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대에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에 동산속영희 최명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동산속영희 가족 그리고 선생님, 학생들과 소중하게 키워 동산고에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학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장으로 취임한다는 기쁨보다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1세기의 명품 고등학교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우리 모두의 화합과 사랑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그 나라 국민의 창의력이 국부의 원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AI(인공지능)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암기한 지식이나 수학 공식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즉, 시비(是非)를 가리고 진위(眞僞)를 가릴 줄 아는 분별력,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을 가진 인재육성, 즉 수학, 과학, 공학을 바탕으로 인문학·예술적 소양을 아우르는 창의 융합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감성을 함양하고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익혀 작게는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실 있는 인성교육과 기초·기본교육, 인문학 독서의 바탕 아래에서만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융합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따라서 기초·기본 교육에 충실하면서, 배움과 익힘 그리고 즐거움의 조화를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열린 학교교육과정 즉, 학생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에 적합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높이는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저마다의 재능은 지속적인 독서를 통하여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즉, 시비(是非)를 가리고 진위(眞僞)를 가릴 줄 아는
분별력,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디이상 지적인 능력만으로는 미래인재가 될 수 없고, 자기관리역량, 의사소통역량, 공감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역량 등을 함께 갖출 때 진정한 21세기 미래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회화가 아니라 조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가 많이 가르쳐서 교사의 의도대로 학생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탁월함이 드러나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학생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산고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해야 합니다. 지식 중심 교육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이 많이 아는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의 핵심은 첫째, 교사 중심의 획일적 지식 전달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 참여 중심,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수업방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둘째, 그에 따라 지식 중심 평가에서 역량 중심 평가로 평가방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셋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체험 진로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교육공동체인 동산 가족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넘어야 할 과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의 정착으로서로가 학교 교훈 신의처럼 신뢰하는 마음을 싹틔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리더십은 20%, 팔로워십은 80%라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듯 교육 활동을 직접 하시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 그러면서도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라면 더 없이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오고 싶은 학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동산을 만들기 위해 모두 동참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민족사학 동산에 입학하게 된 동산고의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